

최다빈, 세계피겨선수권 쇼트 11위

62.66 개인 최고점… 프리스케이팅 출전권 획득
평창올림픽 출전권 2장 획득 가능성 남아

한국 피겨 여자 싱글 '간판' 최다빈(17·수리고)이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다빈은 2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62.66점을 얻어 전체 37명 가운데 11위에 올랐다.

기술점수(TES) 35.46점을 얻은 최다빈은 예술점수(PCS) 27.20점을 챙겼다.

이날 최다빈의 점수는 지난달 중순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열린 4대륙선수권 대회에서 받은 ISU 공인 쇼트프로그램 개인 최고점(61.62점)을 1.04점 끌어올린 것이다.

최다빈은 쇼트프로그램 상위 24명에게 주어지는 프리스케이팅 출전권을 기록에 따랐다.

이번 대회에서 1, 2위를 차지한 선수의 국가에 평창올림픽 출전권이 각 3장씩, 3~10위 선수의 국가에 각 2장씩 주어진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남녀 싱글에 걸려 있는 평창올림픽 출전권은 총 24장이다. 최다빈은 쇼트프로그램에서 11위에 자리하면서 평창올림픽 출전권 2장 획득 가능성을 남겨뒀다.

프리스케이팅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최다빈이 순위를 한 계단만 끌어올려도 한국 피겨 여자 싱글에 평창올림픽 출전권 2장을 선사할 수 있다.

올 시즌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7위, 6차 대회에서 9위에 머물렀던 최다빈은 최근 상승세를 자신했다.

지난달 19일 강릉에서 막을 내린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총점에서 모두 ISU 공인 개인 최고점을 같아치우며 5위를 차지했다.

4대륙선수권대회를 마치고 박소연(20·단국대)의 빨목 부상 여파로 갑작스럽게

2017 샤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나선 최다빈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아시안게임 피겨 여자 싱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한 달 동안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한 최다빈은 쇼트프로그램에서 '클린 연기'를 선보이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옮긴 것은 '피겨여왕' 김연아와 박소연 뿐이다.

김연아는 세계선수권대회에 6차례 출전해 2009년, 2013년 금메달을 따는 등 개인 통산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세 차례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선 박소연은 2014년 9위에 오른 바 있다.

6조 두 번째(전체 27번째) 순서로 빙판 위에 선 최다빈은 '스티븐 유니버스'의 삽입곡인 '잇츠 오버, 이즌트 잇(It's over, isn't it)'과 최근 히트한 영화 '리리랜드'의 OST인 '썸 원 인 더 크라우드(Some are in the crowd)' 편곡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최다빈은 첫 번째 점프 파제이자 자신의 쇼트프로그램 구성요소 중 10.30점을

로 가장 높은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뛰어 수행점수(GOE) 0.60점을 챙겼다.

체인지 롬비네이션 스핀과 플리잉 카멜 스핀을 모두 레벨4로 처리하며 연기를 이어간 최다빈은 트리플 플립에서 GOE 0.10점을 얻었다.

스텝시퀀스에서 레벨3를 받은 최다빈은 더블 악셀을 무난하게 소화해 0.50점의 GOE를 따냈다.

최다빈은 레이백 스핀을 레벨4로 처리하며 연기를 미루리했다.

여자 싱글 역대 최고점을 보유하고 있는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러시아)가

79.01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메드베데바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역



최다빈은 2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62.66점을 얻어 전체 37명 가운데 11위에 올랐다.

대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최고점(79.21점)에 불과 0.20점 떨어지는 점수를 얻었다.

케이틀린 오즈먼드(캐나다)가 75.98점

을 받아 2위에 올랐고, 3위는 72.19점을 받은 가브리엘 데일먼(캐나다)의 차지가 됐다.

/김민근기자



류현진, 5선발로 시즌 시작
내달 8일 콜로라도전 쿠어스필드 출격

2연 만에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류현진(30·LA 다저스)이 5선발로 시즌을 시작한다.

복귀전 상대는 콜로라도 로키스로 '투수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쿠어스필드에 선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BL.com' 디저스 담당 켄 거닉 기자는 30일(한국시간) 디저스의 투수 로테이션 운용 계획과 관련해 브래드 매카시가 4선발, 류현진이 5선발이다. 알렉스 우드는 불펜, 로스 스트리풀링은 풍월리프를 맡는다고 전했다.

지역매체 'LA 타임스' 앤디 매컬러프 기자도 '선발 로테이션은 클레이튼 커소 미에다 켄타, 리치 힐, 매카시, 류현진 순이다. 불펜은 켄리 캔슨 세르지오 로모 데이튼, 그랜트 데이턴, 루이스 아빌란 크리스 해처, 우드, 스트리풀링'이다고 디저스 개막 로스터 투수진을 설명했다.

전날 개막 선발진 힘을 확정한 류현진은 커소(좌완)-힐(좌완)-미에다(우완)-매카시(우완)에 이어 5선발 보직을 맡게 됐다.

디저스는 다음달 4일부터 디저스파크에서 샌디에이고와 개막 4연전을 가진뒤 콜로라도 원정 3연전을 떠난다.

선발 4명이 흠 개막 4연전에 차례로 오른 뒤 류현진은 콜로라도 원정 첫 경기에 선발 등판하게 된다.

지난해 7월 샌디에이고전 이후 9개월 만에 선발 복귀전을 갖게 된다.

콜로라도 원정은 투수들에게 부담스런 일정이다.

쿠어스필드는 해발 1600m 고지대에 위치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이른바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린다.

쿠어스필드에는 1차례 등판 경험이 있다. 지난 2015년 6월 7일 선발로 나서 60.1닝 8피안타(1피홈런) 2볼넷 2실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쿠어스필드 뿐 아니라 콜로라도를 상대로도 비교적 무난한 경기를 펼쳤다.

통산 5경기에 등판해 3승2패 평균자책점 4.00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지난 2년간 어깨와 팔꿈치 수술을 받으며 공백기를 겪었다.

올해 시범경기 4경기에 나서 14이닝 4실점 2.57로 부활을 예고했지만 정규시즌 등판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의문이다.

류현진은 다음달 2일 LA 에인절스와 시범경기에 등판해 2~3이닝 정도를 던지며 최종 점수를 할 예정이다.

복귀 무대가 쿠어스필드라는 점에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건강을 되찾은 만큼 '코리안 몬스터'의 귀환 무대로 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민근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